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8년 7월호

통권 제 182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6월 교우소식

장례

- ♣ 고 김이배성도(오정순권사 부군, 80세)
5월 31일 별세 6월 3일 장례.
- ♣ 고 김정옥집사(이경자권사 부군, 79세)
6월 1일 별세 6월 3일 장례.

출국

- ♣ 이주영장로 · 오도광집사, 6월 13일 ~ 6월 28일
미국 친지방문.
- ♣ 광원섭집사 · 한행자집사, 6월 14일
미국 가족방문

입원

- ♣ 오진철 성도(송영자 권사 아들)
신촌세브란스 1610호.
- ♣ 이진구 (이희창 청년 부친), 강북삼성병원 707호.
- ♣ 김태분교우, 신촌연세병원 305호.

첫 번째 청년부흥회, 그리고 1박2일

김현진 자매

한 시간 동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것은 평안이다. 말씀이 나의 내면세계를 콕콕 찌른다는 것은 짜릿함이다.



지난 6월 23 ~ 25일, 제 1회 청년 부흥회가 3일 동안 안동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교회 장로님들, 여전도회, 남전도회, 호산나 찬양대 등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은혜가운데 감사하게 마쳤다. 젊은이들이 목말라하고 가장 고민하는 「젊음, 나를 찾다」 라는 주제로 열린 청년 부흥회는 1시간 가량의 찬양, 황영태 담임목사님의 말씀선포, 간식과 함께 하는 조별 나눔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평소 청년부 SWH모임을 통해 부흥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했던 청년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다. 찬양을 통해 감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조별 나눔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통찰하여 적용으로 이어졌던 지난 부흥회는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바로 사랑해야만 주님의 첫째 되는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둘째 날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존경 받기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마음속 열정을 동기로 가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셋째 날은 '열정을 태우는 나'라는 메시지였는데, 완벽주의를 버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다.

이번 부흥회 마지막 날에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 속에서 시위가 아닌 내면을 밝히는 촛불을 들고 각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고요하지만 달콤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하고, 투정도 부려가며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자신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었다. 바쁜 일상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해본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 청년들에게 26-27일, 산정호수에서 1박 2일이라는 쉼이 있는 시간도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마음껏 먹고 뛰놀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이 있는 1박 2일이었다. 누군가에게 인정 받기위해, 혹은 실망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때로는 사랑 받고 싶어 아등바등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번 부흥회와 수련회는 너무나 달콤한 하나님 품안이었다.



부흥회 마지막 날 부른 찬양이 생각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가장 선

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즐겁고 기쁜 찬양임에도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이 감격스러웠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에 100% 공감!!

아가야 - 너는 특별하단다

박경진 자매

아직도 내 믿음은 날마다 자라는 중이어서 흑 찾아오는 슬럼프나 위기에 굳고 정한 갈매나무 처럼은 버터내질 못할 때가 더러 있다. 더 솔직해 지자면 내 이 '마음 무너짐'은 '더러 있음'에 그치지 않고 자주로 흑은 수시로 약해진다. 돌이켜보면 그 동안 내 하나님은 관념 속 하나님에 그쳤던 것 같다. 그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고, 실로 느껴지는 감동이 있긴 했지만, 그와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듯 매일을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되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다시 말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채로 솔하게 고민하며 불안해왔던 시간이 길었다. 해서 오래토록 헤맸던 시간이 길었다. 더 이상은 헤매고 싶지 않았다. 적당하게 세상 논리와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신앙을 도구로 해서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동기부여 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 믿음이 성경에 적힌 그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지레 겁을 내며 뒷걸음만 쳤다. 더 많이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은연중 적당히 믿음을 유지하려는 내 스스로에게 모종의 찝찝함을 느꼈다.

간절히 원해도 제 때가 아닌 타이밍이라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소망할 수 있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가끔은 내 원들도 기꺼이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 신앙은 마치 어설프게 도식화된 공식같이 딱딱하게 고루해지고 말았다.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해 봐도 늘 내 마음은 더 많은 느낌과 감동을 요구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도들의 고백이 대체 어떤 믿음과 울림에서 토해진 것인지 알고 싶었다.

이런 내게 '젊음, 나를 찾다'라는 청년 부흥회의 표어는 보는 즉시 내 속을 시원하게 후뱀다. 정말이지 먼저는 '나'를 알 필요가 있었다. 잃어버린 날 다시 찾아 곧게 일어나고 싶었다. 3일의 부흥회와 수련회를 통해 내가 가장 깊이 느끼고 깨달은

것은 우리는 참 많이 상처받았다는 것, 단지 서로의 사랑이 필요한 너무 약한 존재에 불과하던 것, 사랑만 받기에도 여전히 많이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소중한 내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쉬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삭개오와 마리아와 마르다, 달란트 예화를 통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통해 사랑받을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아로 새겼다.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며 그것이 마리아처럼 기꺼울 때에야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젠 맘으로 끄덕여졌다.

산정호수의 아름다운 능선들과 그림 같은 암벽들 맛있는 음식... 죽기 전까지도 다 누리질 못할 축복들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나는 여태껏 겁만 내며 이게 정말 내가 누리도 되는 것인지 바보처럼 주저하기만 했다. 세상은 더 멋진 자격과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지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특별한 것만을 선물하신다. 그 어떤 자격도 실력도 관여치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이미 난 자격있다 하신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계속 쳐다 보라

정소여 자매

지난 6월 23일~25일 안동 청년부가 처음으로 주최한 청년부흥회가 교회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젊음, 나를 찾다”를 주제로 3일간 열린 부흥회에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이 나와 청년부의 하바찬양 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황영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뒤, 조별 나눔의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부흥회 첫날에는 세리인 삭개오처럼 죄 많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며 “우연이 아닌 나”를 깨달았고, 둘째 날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열정을 태우는 나”를 주제로 각 종에게 주어진 달란트 비유를 보며 어떻게 하면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말씀 선포 중에 목사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라는 속담을 “오르지 못할 나무는 계속 쳐다 보라”로 바꾸신 뒤, 많은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나눔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여러 면으로 지원해 주신 기관들과 성도들의 섬김으로 청년들이 더욱 더 풍성한 예배와

깊은 교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연이어 6월 27일~28일에는 청년수련회가 포천 산정호수에서 열렸습니다. 조별 게임과 공동체 훈련으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뿐 아니라, 조별발표회 시간에는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각 조에서 준비한 연극을 보며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청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밤에는 조별 나눔을 통해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각자에게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누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6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전체 모임에서는 진실하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며 더 깊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산정호수를 산책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묵상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년부흥회와 수련회를 통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안동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알고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음! 나를 찾다

손선경 자매

오랜만에 참석하게 된 부흥회였다. 직장일로 여러 가지로 분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그동안 지쳐있었던 정신과 영혼에 말씀과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고 싶었다. 첫째 날, “우연이 아닌 나” 이 설교말씀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정립하게 해 주었다. 직장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다.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것을 못할까?, 난 왜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지?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왜 태어났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등등등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자신이 가치 없이 느껴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었다. 더욱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오신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배려 속에 “나 자신”이 태어난 것이고, 그러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

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기 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사셨다. "나"는 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둘째 날, "나를 움직이는 것" 사실 둘째 날은 많이 지각했다^^ 나의 삶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중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나도 어쩌면 다른 일들로 인해 분주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즐겁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으므로, 어차피 해야 하고 피할 수 없다면 그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날, "열정을 태우는 나"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내 마음의 꺼져있는 불씨에 불을 당기고, 식었던 열정을 되찾고 싶은 것이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많았다.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나대로 지으셨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중적이고 비참하게 살기보다는 부족하지만 나 자신의 진보를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줘야 한다. 최근 묘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계속 쳐다봐야 오를 수 있다" - 정말 명언이다. 실수하지 않고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해 보는 것은 아닌가! 소극적으로 자기 방어적으로 일해서는 안 되며 눈치 보지 말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일하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르는 것,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져갔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부딪히기 보다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주위를 살피며 눈치만 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면서 성공을 배워가는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나도 모르게 불평이 늘었다. 그건 일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나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주위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심리에서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평하고 있는 동안에는 성공할 수 없고 감사할 일들을 찾아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열정을 다해,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은 나의 성실함을 보시고 갚으실 것이니 작은 일이라도 열정을 다해 충성하라. 부흥회를 마치면서 흑시나 하며 기대했던 뜨거움, 불같은 성령 등에 대한 체험은 없었다^^ 하지만 차분하고 내용이 알찬 설교말씀과 예배 후의 조별모임 등을 통해서 흐트러지고 지쳐 있던 마음이 새롭게 정리된

듯 한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날에 적었던 "나의 결심"은, 첫 번째로, 하루에 한 번씩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두 번째로, 아는 사람을 만나면, 특히 직장에서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먼저 인사하기" 이다.

위의 두 가지 결심은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 마음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실천하기가 쉬운 일도 아니다. 이 결심을 생각 하고 실천하려고 하면서 요즘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낀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좌절감이 생길 때 꺼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되고 있다. "절음, 나를 찾다" 이것은 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일군으로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늘푸른 교실 종강

고명수 권사

6월25일 황영태 담임목사님의 설교말씀으로 종강예배를 드렸다. 한 학기 동안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학기동안의 일정을 생각해 본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드릴까? 정성스런 마음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계명의 학강님을 비롯해 모든 봉사자들이 정성어린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맞이한다. 예배 전 30분간은 찬양시간으로 김종순 집사님의 순수함과 열정적인 찬양으로 마음을 열며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시간이다. 10시30분, 어르신들에게 생의 길잡이가 되는 꼭 필요한 말씀을 구회숙 목사님의 설교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11시부터12시, 매월2주는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특강시간을 갖는다. 꼭 알아야 할 삶의 지혜, 영의양식, 건강관리, 자산관리, 건강체조등, 특강내용도 다양하다. 때로는, 영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어르신들에게 전해드린다. 윤병대 장로님이 기증해주신 크리스찬 르네상스, 홍성창 (SBS.PD)성도가 기증해주신 곡괘이와 청진기, DVD는 감동을 준 영상물이었다. 12시, 정정자봉사부장님을 비롯해 주방 봉사자들 모두가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위해 웰빙 식단을 짜서 정성스럽고 정갈하게 준비한 음식을 드시며 서로의 마음을 나눈다. 올해엔 감사하게도 식

사 후 드실 수 있는 커피를 김향숙 권사님, 계명의 학강님, 늘푸른 교실 회장인 김성대 집사님께서 기증해 주셨다 식후에 옹기종기 앉아 커피를 드시며 마음을 나누는 모습은 순수함과 정겨움을 마음 가득 느끼게 한다.

식사 후 귀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을 즐기시는 어르신도 계신다. 신앙인으로 꼭 알아야 할 성경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열과 성의를 다해 전하시는 장문자 장로님의 성경반, 풍부한 성량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마음가득 감동으로 마음의 스트레칭을 하게하시는 임종대 집사님의 노래사랑방, 지식과 경력을 겸비한 오정섭 집사님의 컴퓨터반, 이경자 선생님의 레크레이션반에서는 원더걸스 노래 tell me에 맞추어 리듬체조를 하는 모습은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흥겨운 가락으로 장구체를 잡게 하시는 김매환 선생님의 국악반, 또한 어르신들에게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기쁨을 드리고자 미용봉사로 수고하시는 이경복집사님. 지난 4월23일은 어르신들과 함께한 봄나들이가 있었다. 장소는 충남 공주에 있는 이안숲속 공원이었다. 도착에 배를 드리고 산나물과 예쁜 야생화로 장식한 산채비빔밥으로 맛있게 식사하고 공원 맨 위에 풍차가 있는 하늘공원을 산책했다. 내려오면서 인공으로 만든 동굴, 야생화전시관, 분재원, 열대식물원을 관람하였다. 한 팀은 아예 산속에 묻혀 나물을 뜯기에 여념이 없었다. 쑥, 뚝나물, 부추, 무공해질경이, 씬바귀 등 봉지 봉지마다 나물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자연을 가득 담고 돌아온 봄 나들였다. 어르신 모두 사고 없이 건강하게 다녀오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봄나들이 사진촬영으로 늘푸른 교실의 추억을 담아주신 김동형 집사님, 오정섭 집사님께 감사드린다. 늘푸른 교실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린다. 아직 빈자리가 많다. 우리교우들의 참여도가 현재는 25% 정도 되는데, 안동교우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웰빙 노년기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샬~롬!!!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



지난 5월 19일부터 중국동포들이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한중수교 전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추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이미 한국에 온지 17년 이상된 분들이고 중국에는 삶의 기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9일 법무부의 결정을 살펴보면 불법체류 중국동포 중에서 늙은 부모를 모시거나 자녀를 키우는 동포, 혹은 자신이 중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분들 등은 구제를 받아 5년간의 체류를 허락받았지만 그 외의 약 9백여 명의 동포들은 지금 당장 추방당해야 하는 형편이고 벌써 추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그동안 '우와 함께 올라'(롬12:15),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레19:13),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19:34)는 말씀을 따라 소외된 이웃의 진정한 친구가 되며 인권을 보호하는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중국동포들이 처한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며 정부 당국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차별없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구상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총회로 들어와 농성 중인 중국동포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정부는 한중수교전 입국한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영주권 발급 등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이 차별없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2008. 5.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영태
인권위원장 이남순

생명운동 10년 평가, 7월 3일 심포지엄

총회 생명살리기운동10년위원회(위원장:김삼환)가 지난 5월 2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제92-3차 회의를 열고 생명살리기운동10년 평가 및 장기적 발전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2 연수실에서 개최될 이번 심포지엄은 생명살리기운동10년을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9월 둘째 주일을 '생명존중주일'로 지정하고 단,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생명살리기운동 10년위는 지난 5월 14일 영남신학대 소강당에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목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명목회를 위한 다양한 방안 및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 강연 강사로 나선 고용수 목사(총회 연구단체협의회장·대구제일교회 시무)는 "교회 본질이 생명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실제 목회에 생명 문화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영성훈련과 더불어 노숙인 고아 외국인노동자와 마약 알코올 중독자, 불신자 이단자 등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의 은행'

장기기증자가 나타나도 수술비가 없어 이식받지 못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은행이 개설됐다. 기독교장기재산기증협회(대표회장:민병익)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교회관 2층 회의실에서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은행'을 창립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광선 목사(증경총회장·신일교회 시무)는 "'사랑의 은행'은 사회 양극화 현상 속에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운동"이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계속 일하다 보면 산을 옮길만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의 은행'은 매달 20명씩, 1년간 2백40명 수술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결손가정 자녀 및 순교자 자손일 경우 1천만 원 이내의 수술비 전액을, 영세민·상이군경 유가족

이나 형편이 어려운 이는 수술비 일부를, 월 소득 1백50만원 미만 가정은 84개월 무이자 신용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랑의 은행'은 30억 자본금 마련을 목표로 오는 10월 10일 오전 11시 기독교교회관 2층에서 기금 확보를 위한 '나눔 자선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창립식에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한 CTS(사장:김경철)의 방송을 통해 후원을 독려하고 수술비를 모금할 계획이다. 환경 살리기의 일환으로 EM효소(유용미생물)를 판매한 뒤 수익금을 수술비로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14년간 장기기증운동을 벌여온 기독교장기재산기증협회 상임회장 박지태목사는 "기증자가 연결돼도 수술비가 없어 기증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자들이 무수하다"면서 "한 교회가 한 명의 환우를 치료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6.25 금식기도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홍기숙)는 지난 25일 한국전쟁 58주년을 맞아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제34회 6.25금식기도회'를 전국 교회들에서 일제히 드렸다. 동족상잔의 아픔과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현실을 회원들의 마음에 새기고 통일을 위한 기도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를 위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예배 순서지 6만여 부를 제작해 지연합회들에 발송하고 "회원들이 민족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낸 에스더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전국 각 지역의 여전도회원들은 △민족의 평화 통일 △국가안보와 정체성 확립, 전군 복음화 △북한 구원운동의 활성화를 소망하며 금식기도에 동참했으며, 이날 드려진 헌금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각 지역 연합회의 군 선교 기금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6.25 참전용사 양화진 방문 헌화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노병들이 한국의 교회를 방문해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예장 합동총회 새에덴 교회(소강석목사 시무)의 초청을 받아 18명의 참전용사들이 21일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2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새에덴 교

회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과 한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연합예배를 갖는 한편, 동작동 현충원과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등을 방문해 옛 전우와 선교사들의 묘에 헌화했다. 이번에 방문한 노병들은 대부분 종전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연합예배에서는 전장 한복판에



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미국과 한국의 노병이 58년 만에 만남을 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문단의 바비 레이 필립스씨는 "종전 이후 줄곧 전쟁 참여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5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발전상을 보니 이제야 참전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양화진에서는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이 자리에서 도널드 엘리슨씨는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로 맺어진 것을 직접 확인하게 돼 가슴이 벅차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한국에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온 새에덴 교회는 6.25전쟁을 상기하고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참전용사의 방한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는 "한국의 평화를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는 행사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사회책임펀드

담배, 술, 포르노, 도박 등 사회에 네거티브(Negative)적 요소를 심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회책임투자펀드. 여기에 기독교 윤리관을 기초로 한 사회책임 기업에 투자한다는 기독교 사회책임펀드가 국내 한 증권사를 통해 출시될 전망이다. "투자이익과 공익을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인을 위해 설계했다"는 이 펀드의 이름은 '한국 선한 청지기 SRI(사회책임투자, Social Responsible Investing) 주식투자신탁'. 삼성증권이 판매하고 한

국투자신탁을 통해 운용되는 이 펀드는 사회책임 기업을 가려내는 전문적인 평가기관 '서스틴 베스트'의 평가 모형에 근거해 상위기업으로 우선 선정된 곳에 투자된다.

이 펀드는 술, 담배, 도박,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회사는 물론 이단사이비 종교 관련 기업까지 배제시킨다. 특히 환경 친화적이면서 여성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투명경영 및 공정거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노력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기독교 사회책임투자 간담회를 주최한 오이코크레딧 한국위원회는 한국 기독교의 사회책임투자 과제와 전망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천영철목사(오이코크레딧 한국위원회)는 "이 펀드는 기독교 연금재단 및 사학재단, 크리스찬 사업가,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투자하는 국내 최초 기독교 사회책임투자 공모형 펀드"라며 "펀드의 성공적 운영은 곧 1천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투자 방법을 보급하고 국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미국 사회책임경영 컨설팅업체 '콘로퍼(Cone Roper)'사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같은 값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열팀장(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기독교 사회책임펀드는 결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향후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회책임투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20여개의 사회책임투자펀드가 1조 9천억 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작년 3천억 원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했다. 기독교 윤리관을 근거해 국내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한국 선한 청지기 SRI 주식투자신탁'에 구두로 계약을 의뢰한 곳은 8개 교단 연금재단협의회 중 예장고신, 기장, 기감 등 세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로회 제34회 수련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박래창)는 7월 9-11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34회 전국장로수련회를 개최한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를 주제로 4천여 명의 회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수련회는 예배와 특강, 특별기도회 등으로 진행된다.

개회예배 설교는 총회장 김영태 목사(청북교회)가 맡을 예정이며, 특강은 경제와 안보, 장로의 직분과 사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특강 강사로는 증경총회장 김태범 목사(삼덕교회),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임성빈 교수(장신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의원, 유종하 전 UN 대사 등이 나선다.

신뢰받는 교회 만들기 30일 여정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우창록, 이하 기윤실)이 신뢰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30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임은 오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서울영동교회(고신·정현구 목사) 교육관 지하 1층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윤실이 5대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는 '정직·책임·정의·평화·배려'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이웃, 교회, 가정, 직장 등에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여정에는 오는 24일 신동식 목사(빛과 소금 교회)의 '신뢰받는 삶'을 주제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노영상 교수(장신대), 김병연 교수(서울대), 이상원 교수(총신대), 황영익 목사(서울남교회), 김은혜 교수(송실대) 등 기윤실 전문위원들이 강사로 나서 각각 발제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 후에는 각 교회에서 '30일의 신뢰여정'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연과 '친한' 2008 녹색교회 비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전병호)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사무총장:양재성)가 본교단 신양교회(차정규목사), 지평교회(기장·이택규목사), 청파교회(기감·김기석목사)를 자연과 '친한' 2008 녹색교회로 선정했다.

신양교회는 서울 관악구에서도 도심 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교회 사역 중 당연한 일과였다. 교회 마당 한 켠에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무화과나무와 십자가나무로 불리는 마가목 등을 심고 연못을 만들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성경 교육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일을 환경주일로 정해 '차

안가져오기 운동'을 벌이고, 작년 겨울에는 화목보일러를 이용해 기름 대신 나무로만 연료를 해결했다. 이때 사용된 땀감은 공원 안에 떨어져 있는 죽은 나뭇가지를 재활용했다. 최근에는 성도들과 함께 구청에서 폐기한 주먹돌 6천개를 가져다가 교회 앞 마당을 꾸몄다.

집에서 안쓰는 세탁기, 침대 등의 물품은 교회창고에 모아 새로 정비한 뒤 새터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교회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차량은 환경오염이 덜한 공압식 엔진과 전기로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꿀 예정이다.

신양교회 담임 차정규목사는 "교인들이 이면지를 사용하고 옷을 재활용해 입는 습관이 생활화 되어 있다"면서 "CO2 감축운동 등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평양 봉수교회 헌당식

평양 봉수교회 헌당 감사예식이 현지에서 7월 16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교회 건축을 주도한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표명민)는 7월 15일 김포에서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에 들어간 후 16일 봉수교회 헌당식을 갖는 것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당식에는 김영태 총회장과 조성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총회 임원과 남선교회 표명민 회장을 포함한 남선교회 관계자 등 1백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선교회에서는 주요 관계자와는 별도로 헌당식에 참석할 이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참석 자격은 봉수교회 건축헌금에 참여한 교회 대표와 기관, 개인, 남선교회원 등이며, 20일까지 남선교회 사무실(02-708-442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봉수교회 헌당을 위해서는 3억원 정도가 부족한 가운데, 총회와 남선교회에서 다각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촌우물가

2008년 7월호 · 통권 제182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종 혁

발행일 : 2008년 7월 6일